

사랑의 교회 직권 취소 국민 청원 시작

주민대책위, 7월 15일부터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건립을 위해 서초구가 허가한 도로점용 처분을 서울시 직권으로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진행된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주민감사대책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서울시 직권취소를 위한 청원 운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이 같이 반발한 이유는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법성 문제 대신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각하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기 때문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오직 기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권으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 취소 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청원에는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서명을 기입한 후 서울 시장 앞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단체 청원시 연명부를 작성해 등기발송해야 한다.

신종일 기자

2014년 비구니 균승 파송 계획 '확정'

비구니 균승 파송 계획이 확정됐다.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7월 25일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균승병과 여성인력 총 14명(기독교 8명, 불교 6명)을 배정해 운영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내년(2014년)에는 육군에 불교 1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균승병과의 여성인력 개방은 각 군의 여성인력 개방 추세와 종교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는 것"이라며 "향후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정신전력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구니 스님의 균승 파송은 그동안 군포교 현장에서 여성 특유의 감성을 활용한 포교를 전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관심이 높았다.

비구니 균승의 자격은 장교로 임관하는 해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인 4년제 대학졸업자다. 현재 균승교구는 자격을 충족하는 비구니 스님 1명을 선발한 상태다. 균승교구는 추가로 1명을 더 선발해 당초 계획인 2명의 비구니 균승이 내년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 영문표기 통일됐다

문화재청, 표기 규칙 8월 1일부터 시행

제각각으로 사용된 문화재 영문 표기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통일 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재 영문 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규칙을 제정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은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세미나, 공청회 등 15회에 걸쳐 관계 전문가, 주한 외국인, 비영여권 유학생, 일반인 등 100여명과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표기 기본원칙으로 △국문 고유어 문화재명칭 최대한 보존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문화재 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 표기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

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 등 4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 표기 기준에 맞춰 로마자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 등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7가지 기준을 정했다.

국문 고유 명칭 최대한 유지

불교문화재는 범어 사용 등

혼란 최소화... 안내물에 적용

다. 또 문화재명칭을 구성하는 890여개의 국문요소로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조물과 유적 명소는 문화재명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자연지명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의미역(접미어)을 덧붙이게 된다. 예를 들어 불국사의 경우 'Bulguksa'와 'Temple of Buddha Land'를 병행해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불교문화재와 관련해서 부처님과 보살의 영문명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 불상은 국문 문화재명칭인 '재질+존명+형태' 순으로 된 경우 '재질+형태+존명' 순으로 표기하게 된다. 금동보살입상은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로 표기한다.

이와 함께 불교 관련 전적은 흔히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고, 보편성이 떨어지는 경우 영문제목을 사용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을 점차적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으며, 관계 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4천여 개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공식명칭을 제시하는 영문용례집을 올해 연말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전쟁 참전 벨기에 용사 60년 만에 봉은사 찾아

한국전쟁 당시 사찰과 인연을 맺었던 외국인 병사들이 60년 만에 그 인연을 되찾아 한국을 찾았다.

프랑스와 북방 주한 벨기에 대사과 한국전 참전 벨기에 재향군인회 소속 참전용사 10명은 7월 31일 정전 60주년을 맞아 서울 봉은사를 방문해 주지 진화 스님을 만나고 경내를 참배했다.

당시 봉은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벨기에 참전용사들은 60년이 지나도 당시의 감동을 잊지 않았다.

이날 벨기에 참전용사들은 주지 진화 스님과 면담에서 "당시 한국인들의 모습과 그 문화를 보며 이 땅에 평화를 지키는 것에 사명감을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이토록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노덕현 기자

중앙신도회, 불교평혜 언론 대응기구 결성

'불교수호비상대책위' 도박승 보도한 SBS부터 제재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불교를 평혜하고 조계종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에 대해 강력 대응을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는 7월 30일 회장단 대책회의를 열고 '불교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불교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정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줄·봉은사 신도회)가 맡았다. 위원은 중앙신도회 부회장인 하복동 김태근 김동기 임장수 위원으로 꾸려졌다.

'불교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조계종 지

도부의 도박 의혹을 보도한 SBS '궁금한 이야기 Y' 가 의도적으로 불교평혜를 했다 는 시각에서 출범한 기구다.

이날 불교수호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종단의 법질서 확립과 종교평화를 위해 허위 날조된 비방과 폭로로부터 종단을 의호하며,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비롯한 의도적인 불교평혜 보도와 불공정한 각종 언론보도 등에 대해 엄정하게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 韓사찰... 앱에서 만난다

미주불교신문사, 2014년 '세계한국불교 총람' 앱 개발

미국전역의 한국사찰을 총망라해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불교인업소록>을 발간한 미주불교신문사가 '세계 한국불교 총람'을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한다.

미주불교신문사(편집장 이종권)는 "2014년 발간을 목표로 전 세계 한국불교 사찰의 위치 및 주소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인근에서 불교인이 운영하는 각종 비즈니스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제작 경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축적해온 미주불교신문사는 다양한 정보를 불자와 공유하는 방식을 고민해오다 최근 IT전문가 김도엽 씨를 발탁해 불자업소록을 겸한 세계 한국불교총람 앱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김도엽 씨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대와 UC버클리를 거쳐 마이크로소프트 실리콘벨리 연구원으로 실력있는 재원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미주불교신문사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김도엽 씨는 "제 작은 능력이 고국을 떠나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미국에 와서 필요성을 느꼈고 많은 분들도 그러시리라 믿고 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제작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한국불교 총람> 스마트폰 전용 앱은 향후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것을 전제로 첫에는 엔트리의 이름 검색, 주소, 위치정보 서비스 등 기초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2단계, 3단계 개발을 거쳐야 안내메시지 공지 및 전송 등의 고급기능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개발의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다.

이종권 미주불교신문 편집국장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국불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최선을 다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파리 7대학 교수·학생들 한국 나들이

문화사업단, 팸투어... 불교문화체험 등 '다채'

파리 7대학 한국어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불교문화체험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파리 7대학 한국어학과 안의 교수와 학생 8명은 8월 1일부터 8일까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의 초청으로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방한은 2011년 한국불교 세계화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이 당시 파리 7대학 예방하고 한국 방문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동화사, 불국사, 범어사, 해인사

등에서 사찰문화체험을 진행하며 경복궁, 창경궁, 한옥마을, 자갈치 시장 등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조계종은 2011년 9월 30일 파리 7대학에서 영산재 공연과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지승 스님은 빈센트 버거 총장, 아너 한국학과장을 만나 조계종류 동국대와 파리 7대학의 교류 증대, 한국학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글= 신종일 기자·사진= 박재완 기자 <다음주 상세보도>



8월 1일 한국을 방문한 파리 7대학 한국어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조계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이성 법륜사 일요법회

불이성 법륜사는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스님께서 1946년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일번지를 주창하며 당대의 훌륭한 법사와 포교사를 초빙하여 1950년대 불교계 최초로 일요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덕암스님 당시까지 이어 오던 일요법회가 지금은 맥이 끊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납이 2012년 주지로 부임하며 첫 번째 발원한 것이 일요법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법륜사 일요법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법륜사로 오십시오. 법륜사 '일요법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주 주제별로 법석을 여는 일요법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법회안내

- * 첫째주 : 명상기도 법회
- * 둘째주 : 사경기도 법회
- * 셋째주 : 대다라니기도 법회
- * 넷째주 : 칠수경 강의

- ◆ 대 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 ◆ 시작일 : 9월 첫째주 일요일
-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 법륜사 3층 대불보전
- ◆ 문 의 : 불이성 법륜사 종무소 (02-732-2710, 3920)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혜일